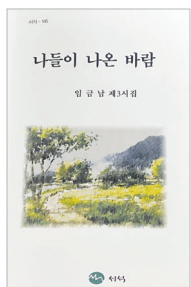


자연과 삶 속 '생명성' 노래하는 시

'안데르센상' 이수지 작가 신작 '우리 다시 언젠가 꼭'



나들이 나온 바람

임금남 시인 세 번째 시집 출간
삶을 받아들이는 자세 담겨
"한 걸음 앞서 나간 시 쓰고파"

임금남 시인의 세 번째 시집 '나들이 나온 바람' 이 서적문학에서 출간됐다. 지난 2018년 '아시아서적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며 시인으로서의 첫발을 디딘 후 현재 아시아서적문학, 광주시인협회 이사, 한국문인협회, 광주문인협회, 한국예술인협회, 화순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 시인은 "처음에도, 그리고 세 번째 시집을 낸 지금에

도 시 쓰기는 항상 쉽지 않다"고 말한다.

"늘 시를 쓸 때면 그 안에 크고 많은 것들을 담고자 소망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시를 써왔다 자부하는 지금까지도 항상 어려운 뿐입니다. 이번 시집도 작년에 낸 작품들보다는 더 나은 시들을 발표해야 한다는 욕심과 부담은 온 정성 다해 시어들을 써 내려갔지만 아직 한참 멀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총 6부로 구성된 이번 시집은 제1부 '봄의 속삭임'을 시작으로 2부 '인내', 3부 '달빛', 4부 '풍경', 5부 '기분 좋은 날', 6부 '차 한 잔의 여유'를 마지막으로 끝난다.

시집은 각 소제목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자연과 그 안에 배어든 '생명성'에 주목한다. 시인은 자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바라본다. 이미 생명이나 가치를 잃어버린 물건들 속에서도 그 안에 숨겨진 희망과 생명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새로운 빛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무엇보다 그녀의 시의 깊이가 잘 들여다보이는 지점은 바로 시가 꿈꾸기도 어려운 거대한 희망을 노래하거나 예상치 못한 불행에 지



임금남

레 겁먹어 좌절하며 우울을 그려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삶을 마치 자연의 순환에 비추어 그려내는 그녀의 시는 희망도, 꿈도 절망도 그저 인생의 일부인 것 이라고 순순히 받아들이는데, 이는 임 시인이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으로는 '외부의 힘으로부터 변형된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을 뜻하는 이 단어는 좌절과 우울이 가득한 인생의 바닥에서 이를 치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 즉 역경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마음의 근력을 설명하는 데도 사용된다.

임 시인은 일회일비하지 않고 삶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며 "내년에는 도자기를 빚는 도공의 마음가짐으로 한 걸음 앞서 나아가는 시를 쓰고 싶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이수지

지난 4월 아동문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받은 그림책 작가 이수지(48)의 신작 '우리 다시 언젠가 꼭' (비룡소)이 출간됐다.

'우리 다시 언젠가 꼭'은 이 작가가 안데르센상 수상 이후 처음 낸 작품으로, 멀리 떨어져 서로를 그리워하는 할머니와 손주에 대한 이야기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인 팻 지틀로 밀라거 글을 짓고,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번역도 했다.

이야기 속 손주는 당장 만날 수 없는 할머니에게 아이다운 상상력으로 다양한 소통을 시도한다. 로켓과 추진기를 이용해 날아가는 그림을 그리고, 편지를 쓰고, 전화를 걸고, 모니터 화면으로 만나는 계획을 세운다.

이 작가는 "이 책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린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책이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바로 표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연향뉴스

새책 나왔어요

◇**불꽃으로 살다**=뛰어난 재능을 오래 펼치지 못하고 요절한 화가들의 삶과 작품 세계를 다룬 책. 영국의 미술 사학자인 저자 케이트 브라이언이 16세기 화가 라파엘로부터 빈센트 반 고흐, 아마다오 모딜리아니, 에바 헤세, 오브리 비어즐리 등 500여 년의 미술사를 아우르며 '불멸의 화가' 30명을 소개한다. 디자인하우스. 308쪽.



◇**고독사 워크숍=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며 존엄한 죽음을 꿈꾸는 인물들의 시시하고 모순된 욕망을 유니버스 형식의로 보여주는 박지영 작가의 장편소설. 고독한 일상을 살아가는 각기 방식을 통해 현실을 깨닫고 무한한 상상을 펼치며 희망을 찾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민음사. 38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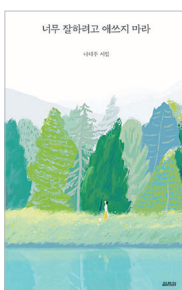
◇**살아남은 아이**=침묵과 망각에의 강요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소설. 여성 피해자-생존자인 화자가 두 개의 둘러싸인 채 하나의 차가운 현실을 살아가는 삶을 그렸다. 소설은 세상의 폭력 혹은 균열을 목격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현대문학. 312쪽.



◇**켈트의 꿈**=201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마리오 바리가스 요사의 장편소설. 벨기에령 식민지 콩고에서 자행된 잔혹한 학살을 처음으로 고발했던 비범한 실존 인물 '로저 케이스먼트'의 일생을 밀도 높게 복원해냄으로써 유럽 식민주의의 이면과 전횡을 조괄적으로 조명한다. 문학동네. 728쪽.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작고 사소해 보이는 주변의 모든 존재들을 애정 가득한 눈으로 시에 담은 나태주 시인의 신작 시집. 힘든 시간을 지나 다시 반짝이는 오늘 앞에 선 우리에게 위로와 응원의 인사를 건네며 소망을 품을 놓지 않고 내일을 기다릴 것을 노래한다. 열림원. 288쪽.



다양한 삶의 궤적 담은 문집

'1학년 8반-꿈·사랑 이야기' 1968년 광주서중 동창 출간 어린시절 향수와 아쉬움 담겨



"지난 2018년 10월경 동창회에서 수원 화성으로 부부동반 야유회를 갔을 때 동창 박강수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서중학교 1학년 8반 모임을 한 번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2019년도부터 동창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모임을 주선한 것이 이번 책 출간의 발단이 됐습니다."

광주서중학교 46회 졸업생 중 당시 1학년 8반에 재학 중이던 친구들이 의기투합해

쓴 책 '1학년 8반-꿈·사랑 이야기'가 출간됐다.

이번 책의 출간 대표 중 한 명인 정완성씨는 "2019년 모임을 주선했지만 2020년 초 전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동창들을 만나기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정씨는 "그러던 중 5월에 서울에서 시간이 되는 친구들과 모이게 됐고, 술 한 잔씩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52년 전 중학생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던 중 그간 살아온 각자의 삶 이야기를 모은 문집을 내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그렇게 원고를 차곡차곡 모아 거의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작지만 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담긴 이번 문집이 탄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책에는 1968년 광주서중학교 1학년 8반에 다니던 중학생 어린아이에서 고회를 눈앞에 두고 노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의 학창

시절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무엇보다도 학업에서부터 직장, 꿈, 자식 등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변해가는 그들의 소망과 삶을 엿보는 재미가 있다. 사회적으로 모두 기반을 잡았고 이제 손자까지 본 할아버지가 된 이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천진난만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녹여낸 글에서는 절절한 향수와 함께 지난 세월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도 엿보인다.

정씨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은 당연지사. 그러나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이 있듯 우리의 짧은 인생도 예술처럼만 산다면 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탄생한 문집 '1학년 8반'을 통해 우리 모두가 남은 기간 오래오래 예술처럼 살아보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1학년 8반-꿈·사랑 이야기'의 출간 대표 중 한 명인 정완성씨가 출판된 책을 들어보고 있다. /오지현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98 (사동)
기사 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